

# 지난 시기 '여성' 소모임을 평가한다

지난 시기... 여기서 지난 시기라는 시기 규정을 해야 하는 이 우리대학의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다. 하기에 2003년 이후 여학생운동과 대비되는 이름으로 전을 지난 시기라고 명명하겠다.

지난 시기 우리대학 소모임 운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던가를 짚어보면서 2003년 이후 소모임 운동의 밝은 전망을 내보자.

## 1. 지난 기간 소모임 실태

### 1) 총여학생회 산하 소모임

- ① 여울슬 - 총여학생회 산하 중앙 소모임으로 1995년 말에 만들어져 2002년까지 활동. 농활, 기활 수행. 자기 대중사업도 진행하였다
- ② 수레바퀴 - 인문대 여학생국 산하 소모임으로 1999년 만들어져 2001년까지 활동

### 2) 과 소모임

- ① X<sup>2</sup> - 언어학과 소모임으로 1998년까지 활동
- ② UTILITY - 행정학과 소모임으로 1998년까지 활동
- ③ 자궁 - 국어교육학과 소모임으로 1999년 만들어져 2000년 정도까지 활동

## 2. 평가

총여학생회에서 직접 지도를 했던 여울슬을 평가하기로 하겠다. 다른 소모임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소모임들 가운데 가장 활동이 활발했고 활동 기간이 길었던 여울슬을 평가하면서 극복과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향후 소모임 운동을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1) 활동과 운영

#### ① 운영

- ▲정기 집회 - 초기 주 2회 정기 집회가 한 동문에서 소모임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2000년부터는 주 1회 집회로 축소됨
- ▲총회, 부서모임 - 1999년까지만 진행됨
- ▲기 모임 - 1998년까지만 진행됨

#### ② 자체 사업

- ▲농활, 기활 - 1998년까지 농활 기활이 진행됨
- ▲성바로 알기 학교 - 대동제 기간 성바로 알기 학교가 1998년까지 진행됨

▲기지촌 여성 돕기 사업 - 대동제 기간 두레방에서 나온 쿠키, 허브 등을 2000년까지 판매

▲금요 영화방 - 매주 금요일 3시에 진행.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꾸준히 진행됨

### 2) 학습

#### ① 체계

- 선배와 후배 학습조가 따로 꾸려졌으나 2001년부터 무너짐
- 여성학 학습 이외의 학습이 1999년부터는 진행되지 않음
- 일상 학습과 새내기들이 선배가 되는 겨울 방학에 진행하던 세미나가 존재.
- 학습을 준비하는 주체만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공유되지 못했다.

#### ② 내용

- 여성문제 전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시기에 이슈로 떠오른 것들에 대해서도 기동성 있게 진행되긴 하였다.
- 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지면서 내용에 있어서 깊게 들어가지 못했다.
- 학습 주체가 준비한 것을 발제·강연하는 식이었다.
- 세미나가 가끔 진행되면서 새내기들이 학습을 준비하고 여성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학습 내용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3) 총여학생회와의 관계

처음 총여학생회 산하 소모임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자체 활동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소모임 성원의 요구와 총여학생회 사업을 더 잘 만들기 위해 소모임을 추동하기 위한 총여학생회의 요구가 서로 대립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다.

### 4) 결국 지난 시기 소모임이 없어진 이유

#### ① 핵심 인자 발굴과 담보 문제

여울슬의 주체를 발굴하고 그 주체를 제대로 담보하는 것을 총여학생회에서 책임져야 했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를 책임졌던 사람들 가운데 여울슬 출신 사람이 거의 없었고 소모임 사업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가지지 못했다.

또한 소모임 운동에 대해서도 요해하고 있지 못했다.

그 결과 소모임의 핵심을 발굴하고 담보하지 못했다.

#### ②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문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성운동 가운데서도 비주류에 속한다. 우리의 운동이 그릇된 것이 아니라 운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구현하는 데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여학생운동 답게 자기 성격을 명확히하면서도 충분히 사회 변혁의 내용을 잘 펼쳐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기간 여성만이 가지는 문제와 민족해방, 변혁의 문제를 제대로 결합시켜 내지 못했다.

그런 점이 총여학생회가 여울슬을 지도하고 여울슬이 자기 내용을 만들어가는 데에도 나타났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여울슬이 자기 운동의 중심으로 틀어쥐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급진, 자유주의 여성운동이 이슈화하는 문제들만 접근하고 만 것이다.

### ③ 자기 사업을 잘 만들어가지 못한 문제

앞서 여울슬이 벌였던 자기 사업을 요약했다. 보면 알겠지만 여울슬 운영이 잘 안되면서 자기 사업도 벌여내지 못했다.

즉, 1년의 흐름 속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짜고 그 것을 소모임 구성원들이 함께 결심하여 집행하지 못했다. 자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자기 소모임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엔 '여성문제'라는 자기 본연의 성격을 잃고는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소모임에서 만들어가자는 의견까지 대두되게 되었다.

### ④ 소모임 성원의 구성 문제

▲총 7기까지 받은 여울슬은 소모임 성원의 구성 문제라는 독특한 자기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2기(7명 가운데 2명만 여자), 3기(6명 가운데 1명만 남자), 4기(5명 가운데 1명만 여자)의 한 성만 집중되어 한 기가 구성되면서 동아리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남학생들은 대개 2학년 때 군대문제가 대두되면서 활동을 접게 되었다. 그 결과 3기들이 3,4학년까지 동아리를 책임져야 했다.

그러나 3기들이 빠지자 선배 층에 공백이 컸고 후배들을 담보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여울슬은 어느 한 동문에서 1기부터 7기까지 꾸준히 들어오는 수준을 넘어서서 소모임이 동문동아리로 전락하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는 그 동문이 아닌 아이들과의 괴리감을 만들어 결국엔 그 동문 아이들만 소모임에 남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 3. 전망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전환기에 서 있다. 전환기란 여태까지 가져왔던 내용과 틀이 아닌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환기에 맞는 소모임 운동의 전망을 밝혀내자.

### 1)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일 자체가 전문적인 것이지만 자주적여학생운동이라는 자기 관점을 명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 소모임에 가입하는 새내기들을 위해서는 '여성문제'라는 포괄적인 주제 보다도 '기지촌', '성매매', '여성노동', 등의 작은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하나의 작은 주제라도 여성운동이라는 귀결은 같기 때문에 넓은 주제로 조금 조금 알게 알아 가는 것보다 어느 한 분야를 틀어쥐면 소모임 성원의 고민도 커질 것이다.

### 2) 소모임의 자기 규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중 사업을 펼쳐 내야 한다.

#### ▲일상적으로 벌여야 한다.

소모임이 벌여내는 대중사업은 그 소모임 생명력의 근거리해고 과언이 아니다. 하기에 소모임이 매일 매일 건강한 생명력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대중사업들이 펼쳐져야 한다.

또한 여성문제는 사람들의 의식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기에 이슈화된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하기에 일상적으로 학우들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3) 소모임은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

대학 사회에서 여학생운동은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다. 지금의 돌파구를 뚫지 못한다면 '자주적 여학생 운동' 또한 미래가 없다.

소모임 운동은 기반이 취약한 여학생회가 자기 기반을 만들어 여학생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한 방도 중의 하나이다.

하기에 소모임 운동의 전망을 밝혀야만 한다.

### 4) 대학간 교류와 연대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대학내에서 여성운동은 소수만이 공감하고 소수만이 주체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성운동가로 살아가고 있다는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서로를 자극하고 모범이 전파되기 위해서 대학간 교류와 연대가 필요하다.

### 5)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온라인 상에 자기 소모임의 보금자리를 문제를 벗어나서 학교 자유게시판에서 소모임의 이름을 달고 학우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사업을 벌여내는 것도 소모임을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학우들을 의조직화할 수 있는 방도이다. 또한 자유게시판에서의 활발한 토론은 소모임 성원을 단련시키는 방도이기도 하다.

또한 자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선 웹진을 만들어도 좋음직하다.

경영대 여학생회 소모임  
**sex**라는 기호를 다루는 사람들  
“햇살”에 관하여.....

탄생  
1997년 3월 3일 (햇살 1기)

소모임 내 학습 내용

- about .....
- 4.3 항쟁
- 국가보안법 철폐
- 민족 통일 방안
- 역사 학습
- 한국 여성 운동사
- 성폭력
- 포르노
- 등 등

.1년 사업 계획서

- 봄 모꼬지, 공개 토론회( )
- 빨간 마후라 특별 대담,
- 기타

성인식 자가 측정 프로그램 등  
: 성에 대해서 최초로 인식했던 적이 언제인가?  
그 때의 느낌은? 사춘기 시절 성에 대한 인식은?  
그 때의 느낌은? 지금 당신이 인식하는 성은?  
학내 해오름식, H 출범식, 농활, 단대 학생회  
사업, 단대 사업 등 엄청 많음

활동

여휴, 화장실 학과방 중심으로 소자보 형태  
의 소식지 발간, 학내 행사, H행사, 학내 여  
학일꾼 모임 등

2001년 문 닫음

이유는 ?

1기 때, 일정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  
다. 여성운동에서부터 역사, 정세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새내기들에게는 혼란  
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sex라는 기호를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모토  
와 활동 내역 사이에 범위가 너무 넓어서 나  
중에는 소모임 집회보다 단대와 단대 H 행  
사 등, 거의 모든 학내외 일정을 사수하는  
과정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단대 학우들 속에서도 ‘운동권’소모임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내기들이 거의 남지 않았고,  
남은 사람들은 학생회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소모임 집회도 거의 갖지 못했으며 새나기와  
회원들은 소모임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잃어  
버린 것 같다. 물론 소모임 내에서의 균열도  
큰 이유이다.

학습 내용을 보면 다소 무거운 분위기의 문  
건이 대부분이고, 반면 “성인식 자가 측정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의 경우는 굉장히 감각  
적이다.

결국 소모임의 성격이 안정적인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 간에도 여러 문  
제로 서로의 이해가 맞지 못해서 전체적인  
소모임의 균열을 불러왔다.

# 민족 정상대 여성소모임 평가와 이후 계획

## ♀ 여성소모임

- ... 새터 : 동아리 형태로 2000년도까지 있다가 없어졌다. 내부 문제로 동아리정족수미달이 되어 쇠퇴하면서 없어졌다.
- ... 등지 : 총여학생회 소모임. 2000년도에 만들어 남녀구분 없이 활동하였다. 당해는 좋은 평가가 낮았지만, 2001년도에 총여학생회가 올바르게 서지 못한 상황에서 등지일꾼을 챙겨내기 힘겨운 상황이 되고 활동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었다. 2002년도에는 등지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집하였으나 체계적인 계획없이 이루어지고 모집도 안되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지금 총여일꾼 중 등지 출신은 아무도 없다.
- ... 민들레 : 법학과 여성소모임. 원래 민들레가 생겨나게 된 것은 법대에서 총여회장을 배출하면서 지지 기반이 되기 위해서였으나 조금씩 변질되고 챙겨내지 못하면서 지금은 깊은 역할을 해 낼 수 없는 상태이다. 사업상으로만 만나고 어느순간 민들레는 단지,, 여성소모임으로만 활동을 하고 있다. 자체에서는 학습도 하고, 성교육프로그램을 받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총여일꾼을 배출해지는 못한다. 그러나 다른 여성소모임보다 탄탄한 소모임이다. 올해 다시 민들레와 지난번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가갈 것이다.
- ... 아레테 : 인문학부에 2002년도에 만들어진 소모임. 과회장이 여성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총여일꾼으로 키워내기 위해 만들었다. 지금은 소모임장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해서 바쁘고, 확고한 의지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소모임회원이 과활동으로 치우쳐 있다. 아직 평가내리기는 무리가 있다.
- ... 의대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잊혀져 버린 지 오래다..... -\_-
- ... 불문학과 여성소모임 : 올해 2003년도에 만들어놓은 상태이다. 아직 이름을 정하진 않았고, 짬만 세워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03학번 새내기가 창단기가 된다. 접하기 쉬운 여성의 문제에서 출발할 것이다. 대중매체 속의 여성문제와 인식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할 것이다. 갓난아기...

### □ ■ 2003 총여계획

등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앨까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공약에 세운대로 일본군위안부할머니 후원단 모집으로 등지가 아닌 다른 새 이름으로 동아리가 새내기 맞이할 때 함께 맞이할 예정이다. 아직 소모임 주체 등은 세우지 않았고, 깊은 논의가 없었지만 곧 조금씩 구체화될 것이다. 새내기들 챙기면서 교양도 쉬운거부터하되 체계를 세워서 꼼꼼히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여국장,부장들을 잘 챙겨서 학습소조도 꾸려서 학습하는 방안도 있고, 이미 총화가 되고 있는상태다. ...

## 울산대 총여학생회 소모임 사업 평가(가)

### ●여문연

- 제기 배경: 울산대운동의 기층인 과,동아리의 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테마기행 사업단이 제기됨  
기존에 여학 산하 여성 문제 연구소(줄여서 여문연)는 2000년 동아리로 인준을 받은 채 활동이 없었던 상태  
기행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여학 소모임으로 다시금 만들겠다는 목표로 2002년 테마기행사업단과 함께 활동함(실제로 기행은 2번 정도 이루어짐)  
여문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족한 여학 일꾼들이었지만 주체를 세워서 중앙기행단과 함께 꾸려나가기로 함  
그렇게 긴박하게 만들어진 여문연은 여학 집행 2명을 포함해서 6명으로 이루어짐
- 한계: 초기에는 사람이 없었고 동아리임에도 가두 모집을 하지 않았음  
개인적 친분 단계에만 머무름  
주체가 늦게 세워지고 역량 부족  
정체성이 없었고 자기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음  
여학에서 함께 고민하거나 담보하지 못함
- 현재: 여문연 구성원들이 대부분 군 문제가 있고 주체가 없는 상황.  
기행이라는 모호함에서 벗어나 대중화에 도움이 되고 총여학생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 중 예)기존의 여성문제 연구모임  
2003년 여문연의 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중

## 여학부장 상황

- 1.인문대: 2월 7일날 만나기로 함. 오후 1시 이후로...  
국문과 회장님과 3월말까지 과 여부 세우기로 했음. 단대 운영위에서 제안하고 개인적으로 과짱님들을 만나는 것이 좋을 듯함.
- 2.사회대: 단대 운영위 참가하기로 함. 단대와 과의 사정으로 아직 집행부 인선이 끝나지 않았고 집행부를 인선하기가 어려워져 여학부장은 고민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우선 단대 운영위에서 제안을 하고 인맥을 통해서 사람을 인선한 후에 과짱님들과 다시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음.
- 3.경영대: 단대 운영위에 참석하여 과짱님들께 여학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제안하는 것이 먼저임. 다음 운영위때 참가하기로 했음.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과짱님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함.
- 4.공과대: 각 과 여학부장님 연락처를 이번주 내로 공대 여학부장님께 받기로 했음.
- 5.자연대: 자연대 여학부장님은 서 있음. 개인적으로 단대 과짱님들에게 연락하여 세워진 곳은 파악하고 부탁하는 것이 좋을 듯함.
- 6.생활대: 생활대는 세워져 있음. 각 과 회장님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을 듯함.
- 7.미술대: 미술대는 세워져 있음. 개인적으로 과짱님들을 만나는 것이 좋을 듯함.
- 8.디자인대: 단대 여학부장을 세우려 하고 있음. 과짱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학부장을 제안 하여야 할 것임.
- 9.산경대학: 산경대학 여학부장 아직 파악 안됨. 각 과는 운영위를 참석하여 우선 제안하고 개인적으로 과짱님들과 다시 연락하는 것이 좋을 듯함.
- 10.음악대: 전혀 대책이 없는 곳이다. 아직 전혀 안되고 있다.